

회원님과 함께 지켜낸 설악산과 흑산도의 기적, 더 단단한 내일을 위해 손잡아 주십시오.

소중한 000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겨울을 재촉하고 있는 가을 안에서 회원님의 일상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10년, 길게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립공원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변함없이 국시모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은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개발의 위협 앞에서 이 땅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온 국시모의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동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

거대한 개발 사업에 맞서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며, 간혹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냉소를 마주할 때면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꾸준한 믿음과 응원은 저희 활동가들이 다시 신을 고쳐 매고 현장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은 기적의 씨앗이 되어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설악산을 지켜낸 10년의 끈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모두가 끝난 일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끈질긴 대응 끝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단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아래의 진관동습지 역시 국시모의 오랜 동행입니다. 환경부가 습지를 매입하여 복원의 가능성이 열린 지금, 우리는 처음과 같이 습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도해 흑산도의 하늘길을 막아섰습니다. 국립공원의 핵심인 흑산도를 파괴하는 공항 건설 사업을 막아내고, 마침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양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폐죽음 당하던 산양들의 비극을 공론화했고, 이제 설악산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 보호의 새 기준을 세웠습니다. 해양 활동을 개척하여 멸종위기 1급 나팔고등의 불법 이용 실태를 고발하고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거문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낚시 오염을 제한하는 '갯바위생태휴식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오랜 동지에게 드리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고백

지켜야 할 자연은 여전히 위태롭고, 개발의 압력은 과거보다 더욱 교묘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현장을 조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전문성과 자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국시모를 믿고 꾸준히 마음을 보태주신 회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흑여나 증액 요청이 부담이 되어 함께 만들어온 이 소중한 인연에 흠이 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실무자들의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은 국시모의 역사를 함께 해오셨기에,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 내어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은 활동의 소중한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물가와 활동 제반 비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활동에 소진되는 비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협약은 절박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는 월 1만 원의 후원액이 시민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힘을 '업그레이드'시켜 충전해 주세요.

회원님, 우리가 함께 지켜온 국립공원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큰 마음을 보태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월 회비를 1만 원(또는 그 이상)으로 증액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원님의 이 작은 변화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을 막아내며, 또 다른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구해내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증액이 어려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만들어갈 회원님과의 인연을 무엇보다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국시모의 곁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회원님의 존재 자체가 저희 활동의 정당성이자 명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용기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시모는 언제나처럼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며, 회원님의 믿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드림

P.S. 함께 보내드리는 '산양 이슈리포트'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슈리포트'는 회원님의 후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후원(월 회비) 증액 방법 안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후원 증액 신청하기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버튼 클릭-홈페이지 접속-휴대전화 번호인증 로그인-증액 신청'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국시모 사무처로 연락 주세요. 유선상 안내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2-961-6547 (평일 10~18시)